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제주의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한국의 바다를 대표하는 야생 동물이다. 자유롭게 물살을 가르며 유영하는 돌고래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에게든 감동적이며, 돌고래가 건강히 사는 바다는 모두의 소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사상 포획되었다가 다시 바다로 야생 방류된 최초의 대형 동물도 바로 돌고래이다. 돌고래쇼를 위해 포획되었던 '제돌이'가 2013년에 제주 김녕 바다로 돌아간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남방큰돌고래, 과연 어떤 동물일까? 그 대표적인 특징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자.

1. 남방큰돌고래 바로알기

남방큰돌고래의 외형

남방큰돌고래는 고래목, 이빨고래아목, 참돌고래과에 속하는 중형 돌고래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성체는 약 2.5m, 250kg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외형이 비슷한 큰돌고래와 비교하면 주둥이가 다소 길며, 성체가 되면 배 부분에 반점들이 생겨난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아열대-온대 해역에 분포하는 이빨고래류의 한 종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홍해, 호주,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한다. 각 지역의 개체군은 서로 교류하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가까울 경우에는 수컷 성체가 다른 개체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합집산 무리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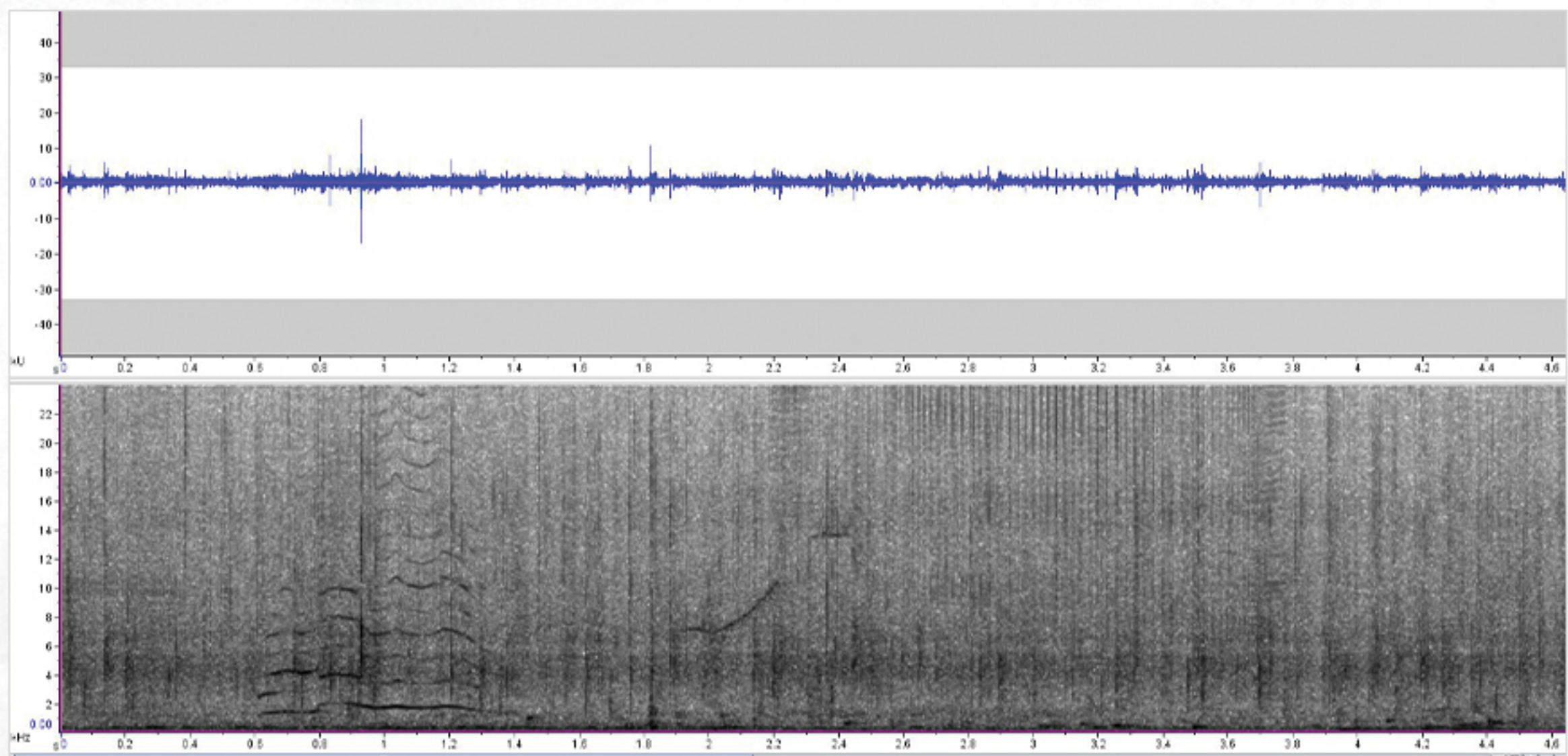
이합집산은 남방큰돌고래가 무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항상 동일한 무리를 구성하지 않고 목적과 상황, 친밀도에 따라 크고 작은 무리를 구성한다. 이 무리들은 합쳐지기도, 새로운 구성원으로 다시 나뉘기도 한다.

사회적인 동물

남방큰돌고래는 이합집산을 통해 다양한 무리를 구성하는데 서로 역할을 나누어 집단으로 사냥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개체에 따라 친하거나 기피해야 하는 대상 등을 파악하는 장·단기 기억력이 발달하였다.

남방큰돌고래의 음향행동

공기보다 시야가 제한되는 물속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소리를 이용하여 이러한 제약을 극복한다. 소리를 이용한 의사소동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박쥐와 마찬가지로 반향정위(echolocation)로 주변의 환경이나 먹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한다. 또 소리를 이용하여 서로를 구별하는데, 이때 돌고래가 이름처럼 각자를 부르는 소리를 '시그니처휘슬(signature whistle)'이라고 한다.



남방큰돌고래의 문화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독특한 사냥법을 갖는다. 스펀지(해면)를 이용하여 주둥이를 보호하며 해저 바닥의 먹이를 찾거나, 얇은 곳으로 먹이를 몰아 잡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독특한 행동들은 어미-새끼 간에는 물론 주변 개체에게 전달되어 집단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를 남방큰돌고래의 문화로 볼 수 있다.



Sl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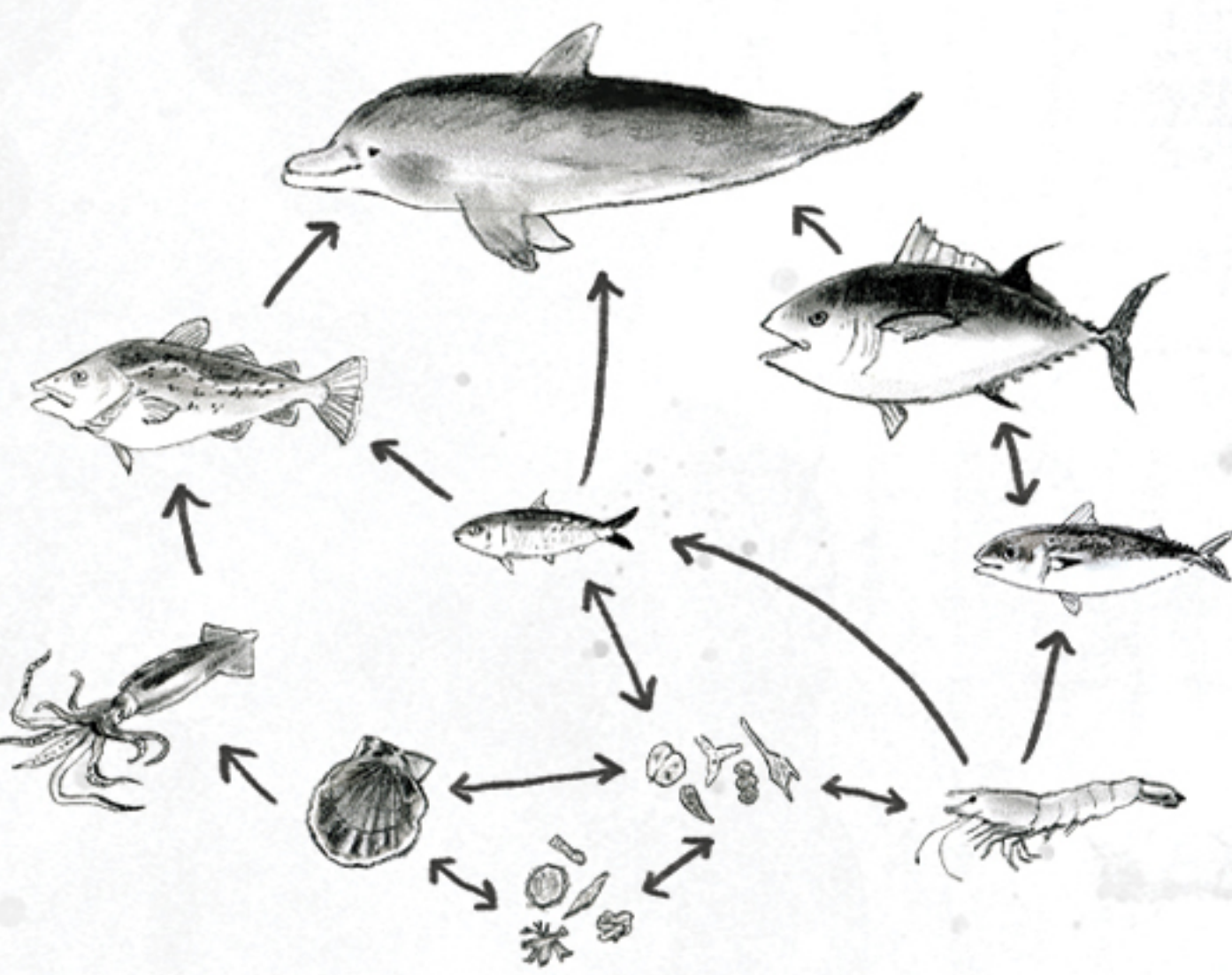


남방큰돌고래 행동의 의미

높은 사회성과 인지능력을 가진 남방큰돌고래는, 인간처럼 한가지의 행동이 한가지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특정한 행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앞뒤 맥락은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꼬리치기(tail slapping)은 먹이를 사냥하거나 무리가 이동하며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할 때, 공격성이 높아질 때에도 나타난다.

해양생태계 내 최상위 포식자

한가지 특정한 종류의 먹이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두족류, 갑각류를 먹이로 삼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하위 먹이그룹을 조절하는 조절자이기도 하다. 이 개체군의 건강 상태를 통해 우리는 제주 연안 환경의 생태적 건강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남방큰돌고래를 만났을 때 지켜야할 수칙



돌고래는 최상위포식자로서 천적 등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바다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험과 역경이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돌고래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과 선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 특히 제주도로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해상에서 돌고래가 느끼는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해양 개발이나 관광으로 인하여 인간 활동이 점차 증가하며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찾아지는 과도한 접근, 해양 쓰레기의 증가, 서식지의 파괴로 인하여 남방큰돌고래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행동에도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과 돌고래의 공존을 위해서는 돌고래의 행동과 생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돌고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남방큰돌고래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본 글에서는 돌고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 돌고래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시한 돌고래에 대한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필독

돌고래 생명 철학

- 1 돌고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 못지않게 자유롭고 온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 2 돌고래는 관광산업의 상품이 아니며 본 자료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3 동물은 직접 관찰 말고도 각종 경험기 가능하며 간접경험 또는 원거리 관찰이 권고된다.
- 4 인간도 바다에 나갈 권리가 있는 만큼 돌고래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수칙이 필요하다.
- 5 인간-돌고래 만남의 기초는 인간의 만족이 아닌 돌고래의 안녕에 근간을 둔다.
- 6 인간-돌고래 만남의 수칙은 상업적 고려가 아닌 과학적 연구에 기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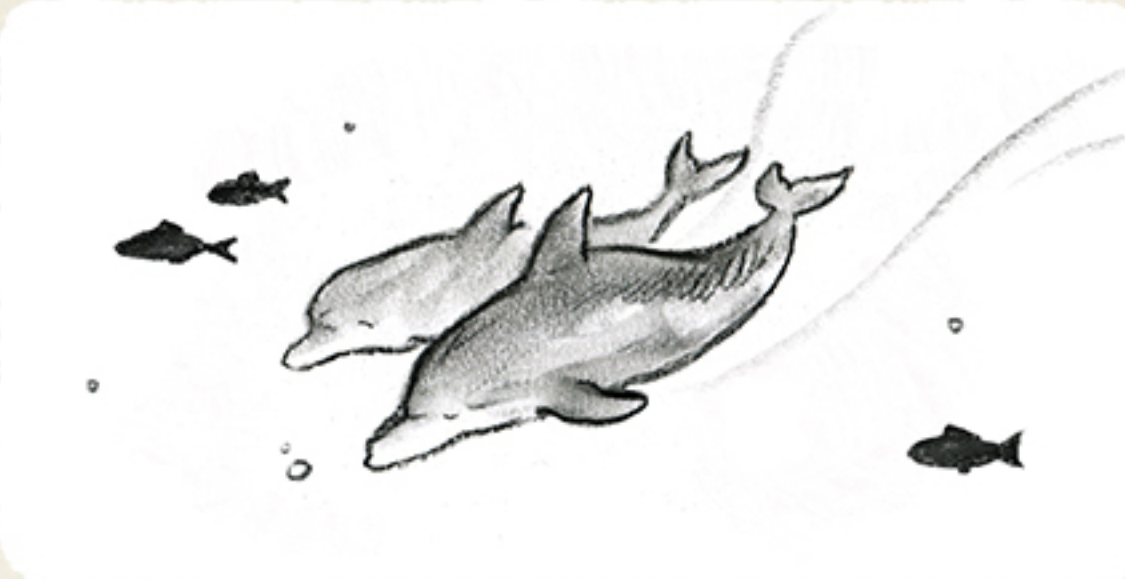
기초 핵심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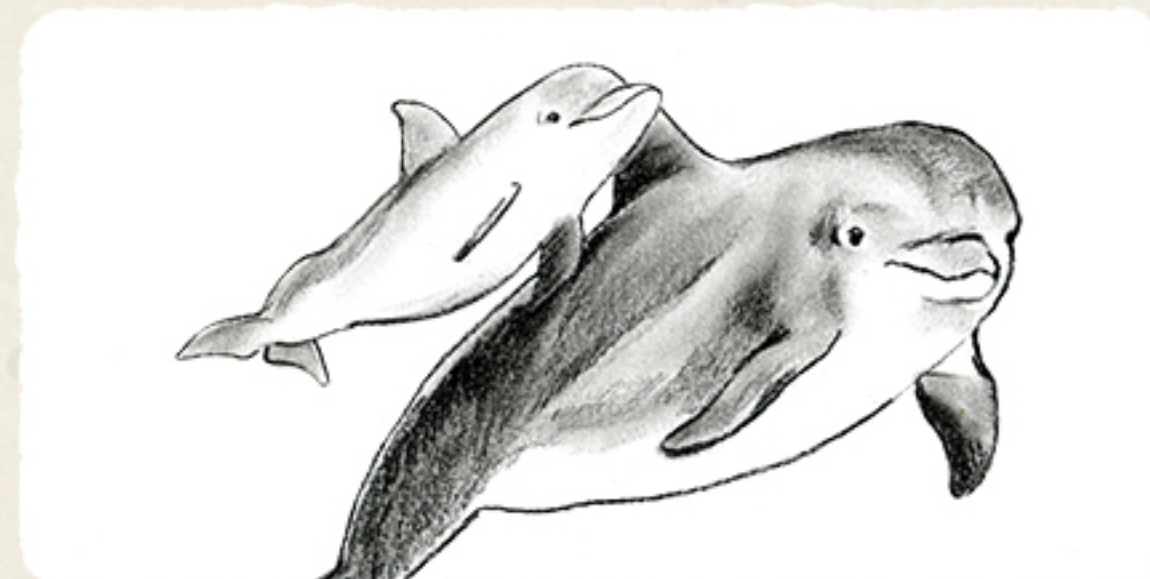
배, 제트스키, 보트가 돌고래와 가까우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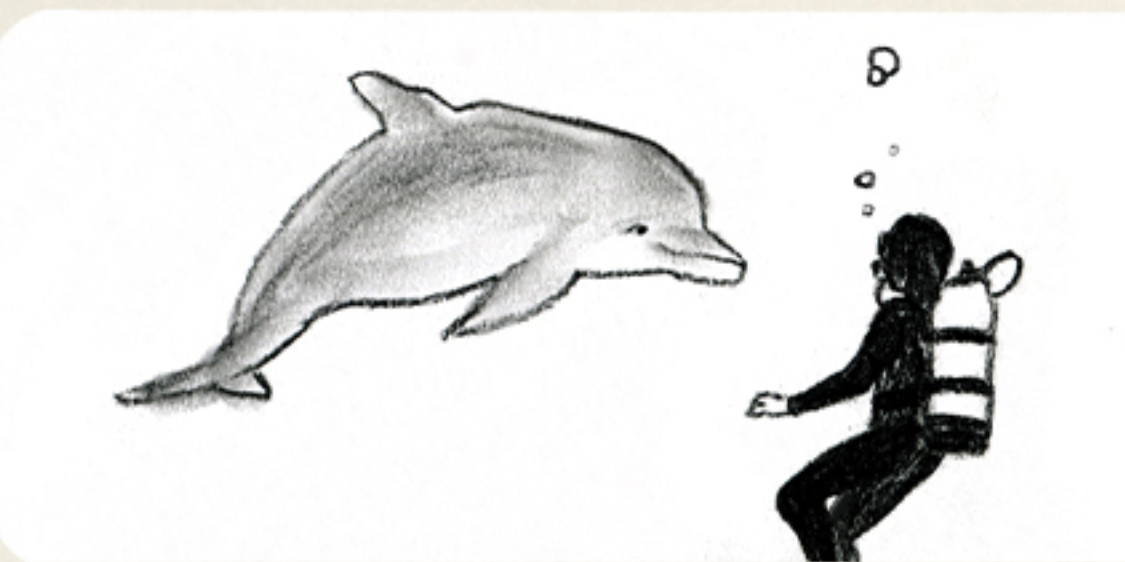
돌고래가 근처에 있을 때 갑자기 방향을 틀면 안 된다.



하루 중 온전히 쉬는 시간이 일정 시간 있어야 한다.



새끼 돌고래가 있을 땐 절대로 접근해선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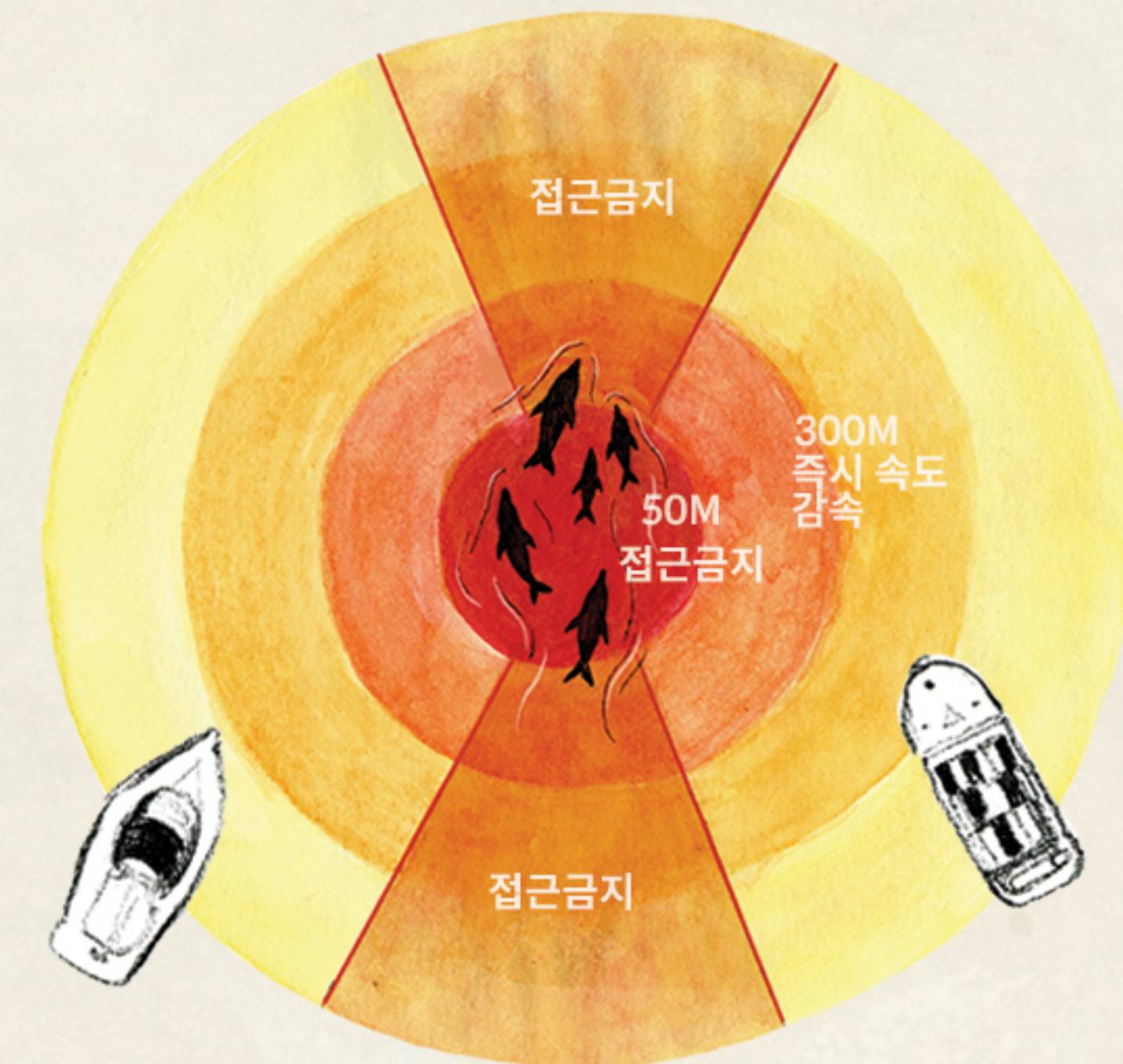


다가올지 말지는 돌고래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 행동 수칙

접근 시

- 50m 이내 접근 금지
- 금지된 방향에서 접근 금지
- 돌고래와 수영하기, 먹이주기 등 금지
- 어미와 새끼 분리시키는 행위 금지
- 하루 중 일정 시간 온전히 쉬는 시간 주기



일반 제한사항

- 300m 이내 돌고래 접근 시 즉시 속도를 감속
- 50m 이내 접근금지 (돌고래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려야 함)
- 선박을 돌고래와 평행 방향으로 이동 (정면 앞이나 후방에서 접근 금지)
- 속도 높여 선수파 타기 유도 금지 (100m 이내엔 선수파가 발생하지 않는 속도로 이동)
- 배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 금지
- 50m 이내에 돌고래 접근 시 정지
- 스트레스 행동이 관찰되면 즉시 거리를 100m 밖으로 벗어날 것



관찰 시

- 소요시간 30분 이내
- 돌고래가 50m 이내 접근 시 엔진은 중립 혹은 정지
- **스트레스 행동***이 관찰되면 관찰 종료
- 관찰 종료 시 돌고래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접근 금지 방향을 피해 거리를 벌림
- 300m 이내 3대 이상 접근 금지
- 돌고래를 해안 방향으로 모는 행위 금지 (해안-돌고래-선박 위치 시 선박이 해안선 150m 이내로 접근 금지)
- 어미와 새끼 관찰될 때 100m이내 접근 금지

스트레스 행동*

